

01 교회소식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제19회 말씀퀴즈대회 시상식과 인도 중부지역 'GCNTV HINDI'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미나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해 참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03 선교

"멕시코에도 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멕시코 톨란싱고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성전을 이루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며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04 간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님을 영접한 뒤 담낭염을 깨끗이 치료받은 인도 프라티마 데비 성도와 하나님 은혜로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황금란 전도사 간증.

# 만민뉴스

제908호 2019년 11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 제19회 말씀퀴즈대회, 본선에서 59명이 경합 벌여



지난 10월 27일, 주일 저녁예배 시 제19회 말씀퀴즈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5일 1차 예선(2,100명)에 이어 2차 예선(97명)을 거친 59명이 본선에 올라 9월 29일에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대상은 대전만민교회 박흥영 목사가 수상했으며 상패와 성지순례 티켓이 주어졌다. 금상은 김현주 전도사(3대대 23교구 교구장), 은상은 허남숙 전도사(대전), 고경석 집사(2-1남선교회), 안계현 집사(대전), 동상은 신명식 집사(4가나안선교회), 김종은 집사(대전), 장려상은 김일두 집사 외 19명, 격려상에는 김하늘 형제 외 31명이 상패와 상금이 수상하였다.

또한 올해 단체상은 지역, 선교회, 지교회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였다. 지역 1위는 중국2교구 1지역이, 선교회 1위는 5가나안선교회가, 지교회 1위는 대전만민교회가 차지했으며, 각각 상패와 상금이 주어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내 안에 말씀이 무장되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영적인 말씀 무장과 함께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성구 한 절을 암송할 것을 당부해 왔으며, 이에 남선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성도들의 말씀 무장을 돕기 위해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해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 인도 중부지역 'GCNTV HINDI' 시청자 세미나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김상휘 목사(인도 텔리만민교회)가 'GCNTV HINDI'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출장을 다녀왔다. 인도 중부지역 마티야 프라데시주 라트람에서 인도르, 사가르에 이르기까지 총 1,954km의 거리를 이동하며 심방,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GCNTV HINDI'는 인도의 힌디어 유튜브 방송으로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주요 설교 등을 방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를 비롯해 많은 시청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가정교회 및 지교회가 계속 생겨나며 치료의 역사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4면 간증 참조).

라트람 지역에서는 'GCNTV HINDI'를 시청하면서 은혜받은 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인도르 지역에서는 'GCNTV HINDI' 시청자들이 모여 만민 지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들과 더

불어 사가르 지역의 치료받은 시청자들이 세미나를 요청함으로 이번 선교 출장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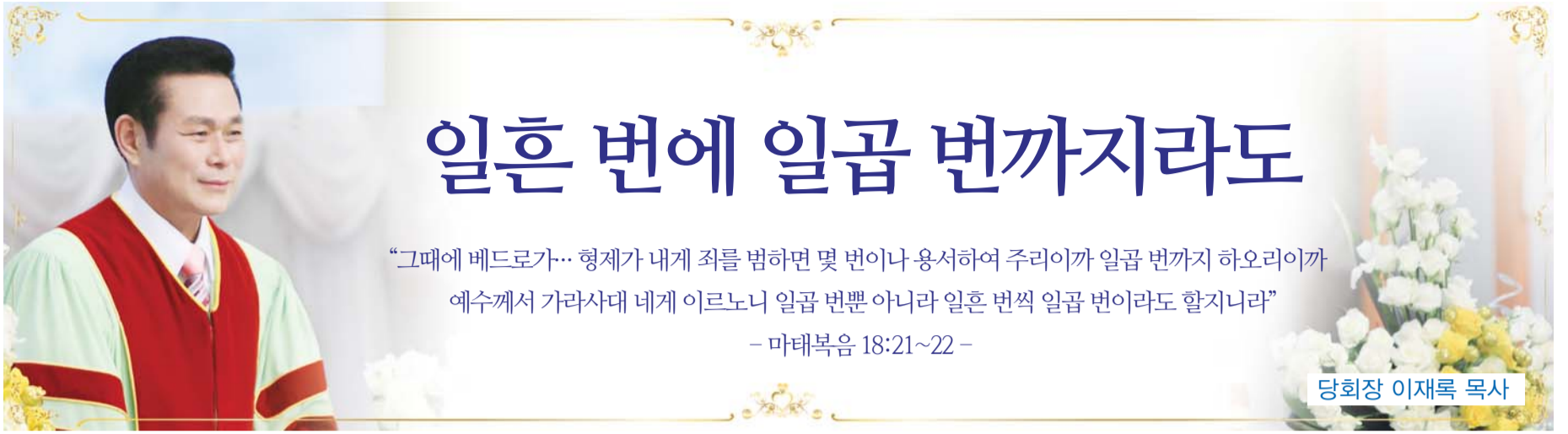
특히, 지난 8월에 유튜브를 통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고 소생한 앙쿠시 넬슨 성도 가정을 심방하였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앙쿠시 성도는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편마비에 전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GCNTV HINDI'에 접속하여 생방송 되는 만민하계수련회를 통해 남편에게 기도를 받게 해 주자 놀랍게도 그 순간 소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왼쪽 몸의 감각이 살아났으며, 아내는 취업하는 축복을 받기도 하였다.

사가르 지역에서는 70여 명이 모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GCNTV HINDI'를 통해 우리 교회 은사집회에 참석한 모니카 성도가 폐질환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소생

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던 리타 성도가 치료되는 등 권능의 역사를 본 이들이 사모함으로 참석해 그들도 체험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한편, 김상휘 목사는 일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악한 영이 떠나고 중풍, 암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어 영광 돌렸다.





#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 마태복음 18:21~22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는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베푸는 관용에는 그 한계가 있어 상대의 잘못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 용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기 위해, 하나님과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여쭙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의 용서라면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일흔 번씩 일곱 번, 즉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이므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란 완전한 용서 곧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범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는 사람 일지라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진리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악뿐 아니라 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 5:28 ; 요일 3:1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우리가 구

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 2. 악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8~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찾고자 사자들을 보내어 살피게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고자 여러 차례 간청을 합니다(창 18:22~32). 결국 의인 오십 명에서부터 시작해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단 열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7~8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했습니다.

만일 소돔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켰다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멸하리라는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에 용서를 거듭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악의 한계점에 달한 상태였기에 멸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달랐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해 심판의 경지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욘 3:4)라고 경고하시자 왕을 비롯해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악인이라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살리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겔 33:14~15), 회개해 온전히 돌이키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 죄과를 기억지도 않으시는(시 103:12)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 3.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요 10:30)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되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을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습니다(눅 23:34).

여기서 ‘저희’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희롱하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할 온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범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간구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애매히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행 7:6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빛 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운데 행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 사단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며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설령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중심에서 우리 나오는 사랑의 기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훼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마 12:31~32), 성령 모독(눅 12:10) 그리고 성령에 참예한 후 타락해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히 6:4~6),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히 10:26~27).

우리는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되 마음만큼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선을 베풀고 잘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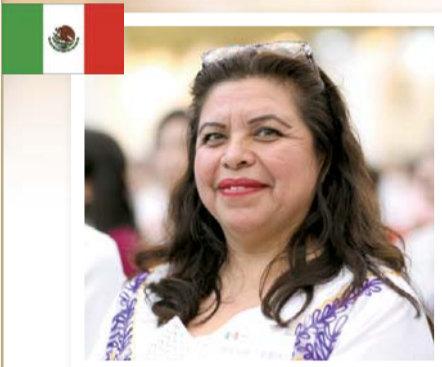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주님께서 영혼들

을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해 참다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상대도 변화되며 원수까지라도 화목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첫 관문인 오래 참음의 기초 위에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이루어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넘쳐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축복이 넘칩니다!”

안토니에따 로블레스 솔리스 성도 (48세, 멕시코 톨란싱고)



2016년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 가기 전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을 켜는데 그때 처음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성경의 문구들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이후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잠자기 전에도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교회를 찾아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았지만, 이재록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교회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그해 10월 콜롬비아만민교회 장정연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콜롬비아만민교회 저녁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2017년에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5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였지요.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와 흡사한 모습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 저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수요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생방송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민과 함께하면서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용자를 받아 집을 사서 30년 동안 상환해야 했는데, 매년 납입금이 증가하고 앞으로 13년이나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 3년 안에 완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니 제 삶은 평안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격이 좋지 않고 매우 강해 직장에서 업무가 잘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문제가 있으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많이 내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과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한 덕분에 성품이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가는 톨란싱고 지성전 성도들

어느 날, 장정연 목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 톨란싱고에 지성전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놓

고 기도하였고, 마침내 2018년에 톨란싱고 지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집에서 9명의 성도가 한 주도 빠짐없이 모여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웃인 아나 마리아 이바(51세) 성도는 저의 평안한 삶을 보며 호기심이 생겨 어느 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만민의 사역과 당회장님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뒤 계속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민을 만난 뒤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호전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레오노르 로살레스(52세) 성도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게 다가와 크리스천인지, 또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민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레오노르 성도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민과 함께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터에서도 축복을 받아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며 행복해합니다. 이 외에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간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저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 차 그토록 사모하던 한국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도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질서정연하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지요. 제가 만민의 성도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멕시코에 돌아온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 부흥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제 삶에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담낭염을 깨끗이 치료받고 새 삶을 살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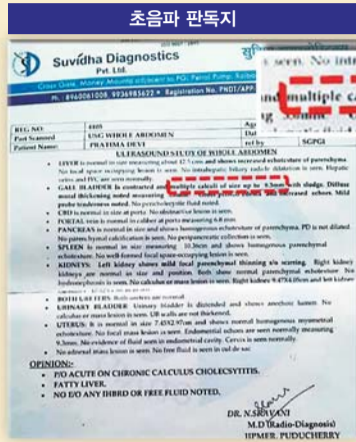
프라티마 데비 성도 (33세, 인도 우타프라데시주 바라나시)

2017년부터 웬지 몸이 좋지 않고 복부에 통증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위궤양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극심한 통증으로 바뀌었고, 한번 시작되면 4~5시간 정도 지속되어 겨울에도 땀을 흘릴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지방간인 데다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며 8.3mm의 담석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수술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냥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으로 매일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고, 이렇게 살다간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쇠약해져 집안일도 할 수 없었고, 몸과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그 무렵 지인인 수니타 자매가 'GCNTV HINDI' 유튜브 방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제 몸이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교 후 해 주시는 당회장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몸이 가벼워져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 3월 은사집회를 'GCNTV HINDI'로 참석해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당회장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지 않던 남편도 제가 온전히 치료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매주일 유튜브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바라나시 인근에 만민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우상을 버리고 참석한 4월 은사집회에서는 기도받은 뒤 극심한 통증이 사라져 집안일을 할 수 있었지요. 부기도 많이 가라앉고 몸이 전보다 좋아져 병원에 가 보니 신장은 정상이며 담석도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은사집회 시 기도받은 뒤에는 조금 남아 있던 통증까지 사라졌지요.

더욱이 'GCNTV HINDI'를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수시로 받으려는 순간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0월 병원 검진 결과, 의사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

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지 않던 남편도 제가 온전히 치료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매주일 유튜브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바라나시 인근에 만민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좌우 시력이 2.0, 1.5로 좋아졌습니다!”

황금란 전도사 (56세, 중국교구 교구장)



저는 원래 눈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좌우 시력이 0.5, 0.3으로 측정되었고, 특히 오른쪽 눈에 난시가 심해 다초점 안경을 착용했음에도 여전히 사물이 뿌옇고 두세 개로 보였지요.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마다 눈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8월, 만민하게수련회 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물이 점점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건강검진 결과 좌우 시력이 1.5,

0.9로 확연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예배 때 화면의 작은 자막까지 잘 볼 수 있게 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말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가 좌우 2.0, 1.5로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마음의 향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싶었지요.

저는 작년 4월부터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궁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교회에 힘이 되기 위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지 않음은 물론 부흥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감사하게도 중국교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뜨겁게 달려올 수 있었으며, 사명을 소중히 여겨 영혼들을 살피고 구제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해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민에서 신앙생활 해 온 지난 35년 동안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이 되어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시력)			
시각 측정 이상	시력(좌/우)	1.5 / 0.9	2016년
01105018	시력(좌/우)	2.0 / 1.5	2019년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병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